스포츠단의성공적운영을통한건설기업의사회공헌

임 영 철 벽산건설 여자핸드볼 선수단 감독

"기업과 스포츠는 윈-윈 관계입니다"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치달을무렵우리국민들은여자핸드볼 선수단의 플레이에 환호와 함께 탄식을 자아냈다.' 우리 생애 최고의순간(우생순) 이라는 영화처럼 빛나는 플레이로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환호가 쏟아졌다. 반면, 노르웨이와 준결승전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을때는격려의박수와함께탄식의 소리도 높았다.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의악몽이되살아났기때문이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열린 3 · 4위 결정전. 국민들은 이 경기에서 감독과 선수들이빚어내는열정과지도자의따뜻한리더십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경기가 끝나기 1분 전. 임영철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한후나이로인해다시는국가대표로뛰기힘든고참선수들의이름을하나씩부르며 마지막 순간을 코트에서 뛰도록 배려하였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힘든 고난의 길을 함께한 이들에게' 마지막1분 '을선물한것이다.

두 번의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명장으로알려진임영철감독. 최근국가대표팀감독에서 물러난 그는 벽산건설 여자핸드볼 선수단의 감독이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던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에는 임영철 감독 외에도주전 골키퍼인오영란, 박정희, 문필희, 김남선, 김온아선수등 벽산건설소속선수들이유독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벽산건설에 둥지를 틀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효명건설의 부도 이후 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4년 간 선수들을 잘 조련하여 강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인천시장님을 찾아가 팀의 회생을 호소하였고, 가까스로 인천시 여자핸드볼선수단으로소속돼팀의와해는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벽산건설이 인천시와 연고 협약 조인식을 맺고 선수단을인수함에따라국내여자핸드볼실업팀 중 유일하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팀을만들게되었습니다. "

임영철감독은벽산건설이팀을인수하면서지원의폭이넓어졌고, 이는경기력향상에도도움이되었다고말한다. 특히, 선수단 운영이어려운상황에서벽산건설이비인기종목임에도팀을인수한일에대해" 어둠속의횃불과같았다 "고평가하였다.

임영철감독은이번베이징올림픽기간동안회사가보여준지원에대해서도고마움을표하였다. 올림픽기간동안벽산건설직원28명과선수단관계자11명등이현지에나가코트밖에서서포터스로든든한후원을한것." 우리나라의여자핸드볼실업팀을보면대부분지자체소속으로돼있습니다. 비인기종목이다보니선뜻맡겠다는기업이 없는 거죠.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낼때는엄청난관심을보이다가대회가끝나면그것으로끝입니다. 그런점에서 우리회사가선수단을 운영하고있는것은 높이평가할만한일입니다. "

임영철감독은 이와함께영화' 우생순 ' 에대해서도고마움을표했다. 벽산건설선수단이 출범할 무렵 이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여자핸드볼이많은관심을받게되었고, 회사에서도핸드볼선수단의존재를새롭게 인식하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다.

임영철 감독은" 2000년대 들어 스포츠단 운영을통한기업홍과는그리크지않다 "고 말했다. 반면,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직원들 간의 단합과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특히 적은 투자로많은감동을줄수있는종목으로핸드볼을꼽았다." 축구다음으로핸드볼이인기가 많은유럽에진출하여우리기업의이미지를 높일수있는가장경쟁력있는종목은핸드볼입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